

북한개발소식

2022 MAR

03

통권 197호

이달의 주제

북한의 군사적 행보와 한반도 평화

탈북민 수기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2)

서평

남북통합목회의 물결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의 군사적 행보와 한반도 평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2 MAR

이달의 주제 :

북한의 군사적 행보와 한반도 평화

- 권두칼럼 **01** 북한의 군사적 행보와 한반도 평화
- 칼럼_1 **09** 문성묵_ 최근 북한의 군사행보와 한반도 평화
- 칼럼_2 **14** 김에스라_ 코로나19와金正은의 선택
- 칼럼_3 **20** 심주일_ 최근 북한의 행보에 대한 선교적 이해와 도전
- 탈북민 수기 **25**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2) -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 북한 뉴스 **31** 북, 김정은 불참속 최고인민회의 개최 외
- 서평 **34** 남북통합목회의 물결
- 북한 기도 제목 **38**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들어서 북한의 군사 행보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월 한 달 동안에만 벌써 7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다. 발사한 미사일 종류도 다양하여 새롭게 개발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두 차례 있었고, KN-23 (속칭 북한판 이스칸다르) 및 화성 11-나형 (KN-24, 속칭 북한판 에이테킴스)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각각 발사하였다. 특히 작년 9월에 이어 열차를 발사대로 활용하여 KN-23 발사를 실시하였다. 그 외에 1월 25일에는 순항미사일을, 1월 30일에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화성-12형을 발사했다.

북한은 다수의 미사일 발사 외에도 핵실험 및 ICBM 발사 재개도 거론했다. 북한은 1월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에서는 ‘신뢰구축조치들의 전면 재고 및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의 재가동’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해당 부문에 지시했다. ‘신뢰구축조치’와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던 ‘핵시험과 대

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중지’, ‘북부 핵시험장 폐기’, 그리고 ‘핵무기와 핵기술 이전’ 금지를 뜻한다. 2018년 4월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자발적 모라토리엄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 해의 시작부터 북한의 군사 부분의 광폭 행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 개발과 군비증강을 제한하거나 막아낼 확실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북한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복음화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무고한 희생과 피흘림을 초래하는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배척하고 평화를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교회와 성도들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심으로 북한의 군비 증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제목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미사일 군비 증강

북한은 지금까지 핵의 투발수단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과거에는 북한의 미사일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고 대응하기 어렵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과거 북한은 이집트에서 들여와 역설계 방식으로 개발한 스커드 B와 C 미사일들을 주력으로 삼았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사거리도 300km대에 머물렀다. 이후 700~900km의 사거리를 가진 스커드 C, 그리고 1,300km 사거리를 가진 노동미사일이 개발, 배치되었다. 이 미사일들은 사거리가 증가했고 노동미사일의 경우 재래식 탄두 외에 핵탄두 설치도 가능하지만 정확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해당 미사일들은 액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주입에 시간이 소요되며 연료저장고 위치가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정황을 포착하고 타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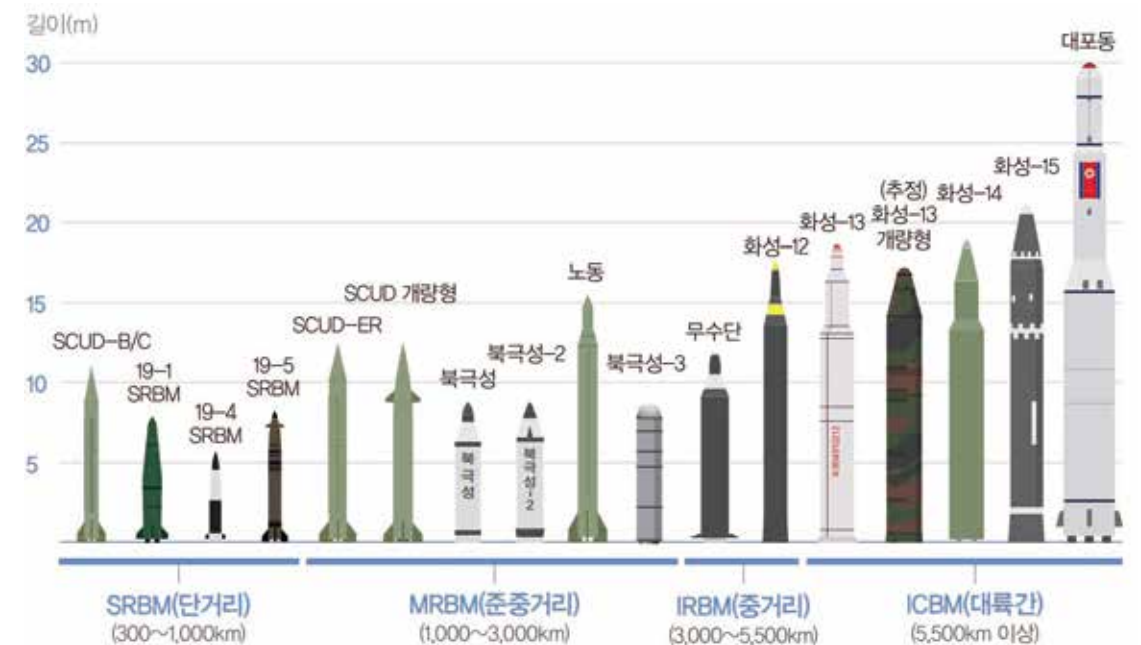
그렇지만 최근 북한이 개발한 신형미사일들은 향상된 사거리와 정확도, 그리고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한이 올 1월 들어 연속으로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의 경우 사거리는 400km 이상이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최대 600km의 사거리를 가진다. KN-23의 경우 열차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다른 열차와 구분이 어려워 표적 구분이 쉽지 않다. KN-23은 발사 후 50km 정도 고도로 상승한 뒤 낙

하하면서 상하 및 좌우로 기동이 가능하여 한·미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중단거리 미사일들이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면, 중장거리 미사일은 해외 미군 기지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중요한 전략무기이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무수단(화성-12형·BM-25, 사거리 2,500~4,000km)과 화성-12형(KN-17, 사거리 4500km)이 실전 배치되어 있다. 각각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와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개발 완료 단계에 있다. 2017년에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4형(KN-20)과 화성-15형(KN-22)은 각각 사거리 1만 km급, 1만 3000km 급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이다. 이후 북한의 추가적인 ICBM 시험발사는 없었지만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화성-15보다 길이와 직경이 더 커진 초대형 ICBM인 화성-16을 공개했다. 이 화성-16은 다탄두 ICBM으로 추정된다.¹

북한은 미사일의 사거리와 속도, 정확도 향상 외에도 다양한 탄두 개발 및 소형화, 발사 플랫폼 다양화 (열차, 잠수함(SLBM) 등), 액체

1 김민석, “북한 미사일 전력 현황과 평가”, 월간 북한 22년 1월호, pp 24~33.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 (국방백서 2020)〉

연료엔진의 개량과 고체연료엔진 기술 고도화 등 계속해서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선전하는 기술 수준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도 전문가들은 진정한 의미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성능이 개량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다.² 하지만 비록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자신들이 선전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이 계속해서 한미연합의 미사일방어체계를 회피 또는 무력화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2 신승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평가 및 함의”, 한국 국방연구원 동북아정세안보분석, 22.02.09.

북한의 군비 증강 방향과 2022년 전망

북한의 군사적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비롯한 강력한 비대칭전력의 구비와 이를 통한 핵보유국 지위를 향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사안보 정책이 국내정치나 협상용이 아니라 자체의 목표와 진행과정을 밟아가고 있으며, 그 종착점은 바로 모든 미사일 탄두에 핵을 장착해 실전배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북한 정권은 미국과 끝을 알 수 없는 적대관계와 불확실한 동북아 지정학적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믿음직한 안전판으로서 핵미사일 보유를 최고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김정은이 언급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초대형 핵탄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무인정찰기 등 핵심 무기 보유까지 나아갈 것이고 이는 안보정책이 외교정책 앞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³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연초 북한의 행보를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북한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현 남북관계는 북한이 주도권을 지니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타협을 선택할 때까지 핵능력을 계속 고도화할 것이고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이다.⁴

북한이 이 시점에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로는 올해 주변국의 정치적 일정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22년에는 한국의 대선과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중국의 20차 당대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정권 교체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대북 정책의 추진력 확보가 당분간은 어렵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바이든 정부의 “조정된 실용적 접근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 불리는 대북 정책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사실상 전략적 인내 시즌2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코로나19 방역, 인플레이션과 경기부양,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북한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있는 듯한 모습이다. 중국의 경우도 이번 당 대회가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국내 정세 관리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북한은 이러한 주변국의 상황을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각종 군사적 행보를 벌일 기회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더 나아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디딤돌로 삼고자 하고 있다.

1월에 연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실시한 북한은 2월 들어 관련 활동을 쉬어가고 있다. 아무래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진행과 남한의 대선 등의 일정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이 3월로 예정되어 있고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10주년인 만큼, 북한이 3월을 기점으로 군사적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혼란한 국제 정세와 마땅치 않은 대응책

북한의 군비 증강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 고

도화에 대응하는 확실한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북한의 군비 증강을 멈추고 군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이끌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실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점진적인 군축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북한과 핵폐기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일단 묵인하면서 북한의 단계적인 핵감축이라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타협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북한을 핵협상에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및 유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고 한미연합훈련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⁵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목표는 파국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을 견인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도에 가깝”기 때문에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의 명분과 실리가 주어진다면 북한을 다시금 협상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파격적인 화상 남북정상회담이나 북한에게 절실한 대규모 백신협력, 그리고 필요시 한미연합훈련 연기 등의 창의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전 북미 대화에서 언급된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안 등의 점진적 군축안도 바이든 정부의 실용적 접근에 부합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능력을 축소하는 단계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던 만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⁶

반면 차두현 아산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좀더 강경한 태도를 이야기한다. 차 연구위원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다가는 자신들의 정권 및 체제에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이 올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도 북한 비핵화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분석하고 수사적인 평화나 화해협력의 구호가 아닌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북한의 핵위협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핵위협 대비를 위한 우리와 한미 차원의 능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대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감’ 차원을 넘어선 ‘도발 중단’을

3 서보혁,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와 ‘두꺼운 평화’”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CO 22-03 (22.01.20). p 2.

4 차두혁, “2022 년 초 북한 동향과 그 함축성: 그 동인(動因)과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22-05 (22.02.07). p 10.

5 정성장, “북한의 미사일 연속 시험발사 배경과 한반도 정세 전망”,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2년 2월호 (347호). p. 6.

6 조한범, “북한의 ‘대미 신뢰조치 전면 재고’ 의도와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2-04 (22.01.27). pp 4-5.

요구하고,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모습이 필요하며, 연합대비태세를 과시하는 측면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은 오히려 2018년 이전의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시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뚜렷할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억제타격'(preemptive strike) 계획과 자산을 점검하고 증강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⁷

북한을 움직일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혼란한 국제 정세는 북핵과 군비증강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먼저 연관된 주변 강국들의 입장이 상당히 어긋나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정치외교 및 경제와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러시아 역시 미국과의 관계가 그리 원활치 않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드러나듯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 확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과 대부분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만큼 대북 제재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군사적 행보에 대응하여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식의 강경 대응은 해당 국가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북한의 전략

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으며, 북한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북중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의 압력을 분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신형무기 개발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첨단전술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신형무기 시험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⁸

이런 맥락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통한 비핵화나 군축을 목표대로 이루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수 년 간의 경제제재와 이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셀프 봉쇄”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잘 유지하는 내구성을 보여주었다. 제재나 봉쇄가 경제 분야에 미친 악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체제 위기로까지는 번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이 점진적으로 국경을 열고 무역을 재개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하듯 북한이 근래에 보여주는 태도는 현 제재의 장기화를 예상하고 비록 경제 규모는 축소되더라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과 자력갱생을 통해 버텨내겠다는 모습이다. 현 상황이 북한의 비핵화와 군축에 부정적인 요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 및 핵보유국 인정에 대해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도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될 경우 대만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핵보유를 추진하는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핵과 비대칭 무기 개발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한다고는 하지만,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체제 안정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다. 그 동안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잘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외화 부족과 이로 인한 물자 수입 부족 및 국가 산업생산 차질, 그리고 식량난과 생필

품 부족 등 주민생활의 악화 등 경제난의 여파는 분명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대북제재 해제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어떤 관점에서는 북한 역시 쫓기는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의 기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 한해 북한의 무기 개발과 군비증강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며 이와 관련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각종 무기 시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제어할만한 외교적 동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한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

7 차두혁, 앞의 글, pp 10-12.

8 최용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평가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324호 (22.01.17). pp 3-6.

최근 북한의 군사행보와 한반도 평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은 2022년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 1월 5일부터 30일까지 무려 7회나 발사한 것이다. 즉, 3일~4일 걸려 한 번씩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셈이다. 문제는 이런 미사일이 우리는 물론, 일본과 나아가 미국령 괌까지 타격 가능한 위협이라는 점이다. 1월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이라 주장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미국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독자 제재를 가하자¹ 이에 반발하면서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 2발을 열차에서 발사한 데 이어 17일과 27일에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25일 오전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급기야 30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했다. 화성-12는 비행거리는 800km, 정점고도는 약 2천km로 탐지되었다. 화성-12형 발사는 2017년 이후 4년 만의 일

이다. 2019년 이후 단거리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던 북한이 이제는 중거리미사일발사 도발까지 감행한 것이다. 이번 북한의 화성-12형 발사는 1월 19일 김정은 총비서가 주재한 제8기 6차 정치국 회의에서 2018년 이후 유지해 오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폐기 검토 지시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수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은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미, 대남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인공위성을 빙자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상했다.²

이 글에서는 북한이 최근 발사한 일련의 미사일들이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어떤 위협이 되는 것인지? 북한의 의도와 노림수는 무엇인지 직시하고 대처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정리해보려고 한다.

1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는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가한 첫 번째 제재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3005651071?input=1195m> 검색일 : 2022. 2. 10.


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693909&code=611111111&cp=nv> 검색일 : 2022. 2. 10.

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먼저 우리는 북한 정권의 잘못된 환상이 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군사력과 새로운 무기가 자신을 지키는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의 목을 스스로 옥죄는 악수가 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실제로 핵개발과 ICBM 개발을 재개하여 레드라인을 침범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며 당면한 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주민들에게 이민위천(以民爲天)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핵무기가 아닌 비핵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는 각국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에 힘써야 한다. 대선 이후 새롭게 선출될 한국의 대통령과 주변국 정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혼란한 국제 정세가 안정화되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뜻을 모으고 지혜로운 해결책이 도출되도록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자. 북한의 예상 행보로 미루어볼 때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은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의 경제난은 고위 관료나 지배층이 아닌 서민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체제 내에서도 천대받는 소외계층들이나 추방자의 후손으로 기독교 배경을 가진 이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의 직접적인 핍박 속에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경제난은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

도자의 잘못된 행동과 결정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영적, 육적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더욱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어떤 위협이 되는가?

1월 중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 2회 2발, KN-23으로 명명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1회 2발, 그리고 KN-24로 불리는 북한판 에이태킴스 2회, 4발, 장거리 순항미사일 1회 2발, 그리고 중거리미사일인 화성-12형 1회 1발이다. 어느 정도의 군사적 위협이 되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자.(종합내용은 표-1 참조)

〈극초음속 미사일, HGV〉



〈올 1월 5일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은 올해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하는 활공체(HGV)를 도발의 신호탄으로 쏘아 올렸다. 우리 합참은 5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에 대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³ 그랬더니 북한은 11일에 보란 듯이

같은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12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즉, 국방과학원의 전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최종시험 발사로 규정하면서,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국방과학원 인사들을 직접 축하해줬다고 전했다. 아울러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거리 600km 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으로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하여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면서 성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당 8차대회(2021.1월)에서 제시된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은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마하 5의 고속 탄두가 날아온다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남짓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거기에서 선회기동할 경우, 우리가 보유한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요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동 미사일은 사거리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 한반도는 물론, 주일미군기지도 타격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대응해야 한다.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스칸데르는 1996년 러시아에서 개발된 미사일이다. 사거리는 400~500km로 남한 타격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북한은 스커드 계열의 탄



〈올 1월 14일 발사된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열차를 발사대로 활용한 것이 눈에 띈다.〉

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액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노출되어 기습사격이 제한되었다. 이에 연료를 고체화하고 미사일을 차량 또는 열차에 탑재하여 터널 등 은폐된 상태에서 기습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일반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비행과정에서 회피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2발이며 11분 간격으로 발사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거리 또한 더욱 늘릴 수 있어 주일미군기지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다.

〈KN-24, 북한판 에이태킴스〉

북한판 에이태킴스는 2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무한궤도형 또는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싣고 어디서든 발사가 가능하다. 즉, 터널이나 나무숲에 숨어 있다가 개활지로 나와 2발을 연속 발사한 후 재빨리 은폐한다면 원점 타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미사일에도 전술핵 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에이태킴스



〈올 1월 21일 발사된 KN-24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의 경우 900개가 넘는 다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축구장 3~4개 동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올 1월 25일 발사된 장거리 순항 미사일〉

북한은 25일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경우, 내륙에서 발사되어 동해상으로 9,137초(2시간 32분 17초)간 1,800km를 비행하여 목표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비행고도가 낮아 탐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사일의 속도는 탄도미사일에 비해 느리지만 정확도는 뛰어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거리가 북한 주장대로라면 한반도 전역

3 일반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HCM(Hypersonic Cruise Missile)을 말한다.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게 이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뿐이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극초음속 활공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이다. 즉, 탄도미사일에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탄두에 탑재하여 발사하는 방식이다. 곡선을 그리면서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서 낙하하는 방식인데, 충분히 속력을 얻는 종말단계에서 포물선으로부터 궤도를 바꾸어 글라이더처럼 수평비행으로 활공한다.

과 주일미군기지도 타격이 가능하다. 북한은 이 순항미사일에도 전술핵무기를 탑재하여 운영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성-12형 중거리 미사일〉

북한은 30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 발사에서 무기체계의 정확성, 안전성, 운용효과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수사격이란 이미 생산된 미사일을 무작위로 뽑아 시험사격을 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대량생산체계를 갖추고 이미 작전배치가 완료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발사는 사거리가 비록 800km이며 고도가 2천km였지만, 이는 정상 각도로 발사시 4천5백~5천km의 사거리로 환산이 가능하다. 결국 미국령 괌도 충분히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이



〈올 1월 30일 발사한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미사일에는 핵탄두의 탑재가 가능한 것이다.

북한의 의도와 노림수는 무엇인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에 매진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대내, 대남, 대미 복합적인 의도가 있

지만 궁극적인 의도는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북한 중심의 공산화 통일을 완수하려는 대남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종합할 수 있다.⁴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개입으로 6.25 무력적화통일에 실패한 북한은 이후 대남우위의 군사력 확보에 집중했다. 1970년대 남북한의 경제력이 역전되면서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대남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⁵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KN-23, 24 등)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주일미군 기지를 노린 무기다.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령 괌 또는 하와이를 노리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이 2018년 이후 유지해 온 모리토리엄 파기시사는 것은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가능성을 암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즉,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로 한국을 핵 인질로 잡은 상태에서 일본과 미국의 개입 차단을 위해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만일, 한국을 돕는다면 일본이나 미국도 각오하

4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시키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길 것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5 대량살상무기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칭하며 이를 목표 지점까지 운반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을 총칭한다. WMD는 재래식무기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면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악숙을 파기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몰입하게 된 것이다.

라고 겁박하여 한국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려는 노림수라 할 것이다. 지난 2월 8일 북한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인민의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겐 추호의 용서나 자비도 없을 것"이라는 김정은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세계 앞에 다시 한번 과시한 역사적 쾌거"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세계에는 200여개 나라들이 있지만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많은 나라가 눈치 보며 굴종과 맹종으로 허송세월하는 오늘 세계에서 미국에 제 할 소리를 다하며 당당히 맞서는 나라"라고 자신들을 추켜세웠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제목

평화는 말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경우 치명적인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북한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다면 불이익을 주도록 국제사회가 결집해야 한다. 둘째, 강력한 한미연합억제력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는 순간 종말이 된다는 점을 과시하고 Fight Tonight을 위해 한미연합연습을 정상화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군도 강력한 자위역량을 구비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셋째, 이를 통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변화는 결코 성취될 수 없음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금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표-1〉 최근 북한 발사 미사일 주요 특징 및 위협

구분	미사일	북한 주장	주요 특징/위협
1.5	극초음속(HGV)	120km 측면 기동 700km 목표 명중	로켓 연료 앰플화 : 기습사격 가능 극초음속, 측면기동 및 선회기동으로 한미자산으로 요격이 제한됨
1.11	극초음속(HGV)	240km 선회 기동 1000km 목표 명중	한반도와 주일미군기지 타격도 가능
1.14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철도기동연대 검열사격훈련 2발의 전술유도탄 열차에서 발사, 동해상 목표 명중	터널 등 열차, 이동식 발사대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기습 사격 가능 우회기동으로 요격 회피
1.17/27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17일 평양 순안비행장,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 27일 함경남도 함흥, 상용전투부 위력 확증	2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궤도형 또는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발사 2발 발사후 신속 은폐, 타격 제한
1.25	순항미사일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9,137초 (2시간32분17초)간 1,800km 비행, 목표지점 정확히 타격	다탄두 탑재시 축구장 3~4개 초토화
1.30	화성-12형 중거리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 발사. 무기체계의 정확성, 안전성, 운용 효과성 확인.	비행고도가 낮아 탐지가 어렵고 정확도는 뛰어남. 한반도와 주일미군기지도 타격 가능
			정상 각도로 발사시 4천5백~5천km 사거리, 미국령 괌도 충분히 타격 범위 핵탄두 탑재 가능

출처 : 각종 언론에 발표된 자료를 종합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임

코로나19와 김정은의 선택

김에스라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

코로나19와 북한

2012년 4월 15일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맞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인민군 열병식에서의 첫 공개연설에서 김정은은 “다시는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집권 11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은 여전히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 1월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며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였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경제적·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경폐쇄를 선택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14개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국경폐쇄 조치를 취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의 상황과 맞물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인해 북한의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21년 12

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의 6.5% 감소 이후 최대 규모이다.¹ 실제로 김정은은 2021년 7월 27일 제7차 전국노병대회에서의 연설에서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가 되고 있다”며 북한의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기도 하였다.²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2020년 북한의 명목 국민총생산(GDP)은 34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남한은 1,933조 2,000억 원으로, 북한은 남한 대비 1.8% 수준이다. 참고로 남한의 1980년 GDP가 39조 7,000억 원이었다.³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

1 『한국일보』, 2021년 7월 30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315030002631?did=NA>> (검색일: 2022년 2월 18일).

2 『노동신문』, 2021년 7월 28일.

3 『중앙일보』, 2021년 12월 23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850#home>>. (검색일: 2022년 2월 18일).

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나름대로 경제관리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경제관리체계의 개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2014년 5월 30일 발표된 이른바 5·30담화로 불리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크게 기업관리체계, 무역관리체계, 농업관리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른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불리는 기업관리체계는 계획, 가격, 소득의 배분 등의 영역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무역관리체계에 있어서도 무역의 수행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각 무역단위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농업관리제도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의 도입, 분배제도의 개편 등 전반적으로 협동농장의 경영권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2018년 4월 20일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과업의 관철 및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총력 집중을 선언하였다. 회의에서는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오던 ‘경제·핵무력 건설’의 성공적 완성을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채택하였다.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북한의 새로운 국가전략

노선 발표는 남북 교류협력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키기에 충분했으며, 이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 회동에 이르기까지 김정은이 보여준 이례적인 행보는 이를 뒷받침하였다.

김정은의 선택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경색국면에 접어들었고,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창궐과 맞물려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착 상태에 놓여있다. 2021년 1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는 일각의 기대와 달리 북한은 국경을 폐쇄한 채 강경한 입장을 반복해서 표명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정상 내지는 고위급 인사 간의 회동을 통한 대화 재개의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금세 사그라들었다. 물론 2021년 여름 도쿄 올림픽의 불참으로 인한 IOC의 징계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폐쇄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 자체가



〈김정은 집권 10년(2011~2021)간 핵실험, 미사일발사, 무역량 변동 (조선일보 인포그래픽)〉

불투명하였으나, 북한의 최우방인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야심차게 개최한 올림픽이기에 극적인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종전선언을 내세우며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의 커다란 진전을 원했던 문재인 정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대북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시도하되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다시 한 번 올림픽을 통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장기집권의 초석을 다지려는 시진핑 주석,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완화가 필요한 김정은 등 각 국의 입장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의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금년 1월 5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은 7차례에 걸쳐 총 11발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특히 1월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의 발사는 2018년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모라토리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켰다.

향후 김정은의 선택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김정은이 보여준 행보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속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전망과 논의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개방이란 국제적 규범을 수용한 국내 경제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며, 개혁은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선이 아닌 시장 경제체제로의 개혁을 의미한다. 즉 개혁개방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과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엇보다 외부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소유제도의 전면적인 개혁과 시장화의 확산이 요구된다.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적극적인 경제발전 추진은 시장화의 확산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시장화의 확산은 당과 국가의 지배체계의 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화는 북한 체제의 정체성에 위협요인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의 젊은 나이와 스위스 유학 경험을 토대로 앞선 시기와 다른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최고지도자의 목표는 체제와 권력의 유지이기에 경제발전이 체제의 생존보다 앞선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새로운 전략노선인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은 제한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결국 김정은에게 있어 현실적인 방안은 대북 제재의 해제·완화를 통한 고립의 탈피이다. 빈약한 내수 시장과 산업 기반의 북한이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없이 경제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대북 제재의 부분적 해제·완화를 이뤄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문제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명분’ 혹은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던 남북관계는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방남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계기로 남북군사회담, 라선-하산 프로젝트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2015년 8월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서부전선 포격 사건 등으로 인해 다시금 경색 국면에 놓인 남북관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가져온 김정은의 친서를 계기로 2018년의 이래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의 대화가 성사되었다.

이처럼 경색되어 있는 국면 가운데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대화 재개를 일종의 ‘명분’ 혹은 ‘계기’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계기가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남한은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당분간 현 상황을 타개할만한 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새 정부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적해 있는 국내 문제에 우선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예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김영정 당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당시 경색관계에 있던 남북, 북미관계속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상황과 중국에서 개최되는 여건 상 아시안게임이 남북 단일팀을 비롯한 특별한 ‘명분’이나 ‘계기’를 제공해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문제와 2021년 8월 전격적으로 단행한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의 미숙한 처리에 따른 비판 등에 의한 지지율 하락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간선거에서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미국의 입장에서 미중 패권 경쟁 외에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러시아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북


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쩌면 지난달 북한의 이례적인 미사일 발사는 대북 경제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일지도 모른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현안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린 북한 문제를 다시금 부상시켜 미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도록 유인하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르겠으나, 김정은의 선택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다.

향후 북한이 추가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 온 행태를 돌이켜보면 2022년은 북한에 있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자 김정일

생일 80주년인 이른바 꺾이는 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해이자 남한의 대통령 선거도 치러지기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통해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자 할 것이다. 특히 3~4월 경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연합 훈련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2017년과 비슷한 형태로 화성-12형 이후 화성-14형과 화성-15형 등 사거리가 더 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군사 도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로의 복귀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파기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신용도는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번에 모라토리움을 파기한다면 향후 다시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은 핵실험 중단 및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이상의 행동을 보여 주어야만 하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으로서는 현재의 모라토리움을 유지한 채 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대북제재의 해제·완화를 논의하는 가운데 대외교류의 재개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 될 것이다.

북한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핵무기를 완성하고 김정은이 새롭게 제시한 전략노선인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의 관철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력갱생정신’과 ‘과

학기술’이다. 새로운 전략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경제발전은 ‘자력갱생’에 기초하고 있다.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의 강행으로 인해 시작된 대북제재에서 기인한 ‘자력갱생’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한계에 빠르게 다다르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에게 주어진 선택의 시간 역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최근 북한의 행보에 대한 선교적 이해와 도전

심 주 일 목사 (창조교회 담임, 탈북기독교인회 회장)

필자는 북한군에서 30여 년간 복무하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당시 필자는 평양을 방어하는 부대에서 정치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세상은 거짓이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흥분을 금할 수 없었다. 인간이 만들어 낸 이념들은 다 죄이며 특히 공산주의 이념은 마귀의 산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조직적인 세력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이다. 북한의 철학에서는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이론만을 ‘진리’라고 한다고 정의한다. 이것은 인식된 필연이며 인식된 필연은 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공산주의자들)이 수많은 인류를 현혹시켰던 공산주의 이념은 당연히 인류가 이미 실천을 통해서 검증하고, “아 검증해 보니 진리가 아니구나” 라고 결론이 난 것

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 그뿐 아니라 독재로서 공산주의 이념을 계속해서 실현해 보려고 한다.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멸망하고 무저갱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발악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끝까지 발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가 아니다.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마귀도 하나님을 대적할 세력이 있어야 한다. 군대식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세력들을 강화하고 그 세력들에게 임무를 수립하며 전투진지에 배치하며 최후 지탱점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물러서면 이제는 끝장이다.” 라고 하면서 최후 지탱점을 구성한 것이 바로 오늘의 북한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기 전 갈릴리에서 열한 제자를 불러 대위임령을 하달하신다. 그 명령의 전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은 비단 승천하시기 전 열한 제자에게만 하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달하신 위대한 명령이다. 사실상 이 명령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전사로써 벌이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 그 자체라고 정의한다 해도 그리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엡 6:12)하는 것이다. 악의 영들과 영적 싸움에도 분명한 것은 주 타격방향과 보조타격방향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 타격방향은 분명히 북한을 타고 앉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최후 지탱점을

형성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영들이다. 마귀 자체는 우리 눈에 안 보이나 마귀에 이용당하는 세력들은 우리 눈에 보인다.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할 것 없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마귀의 통치와 이끌림에 이용당하는 마귀의 도구로 전략한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을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는 것은 북한을 잡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 문제이다. 북한을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적을 아는 것이다. 적을 모르고 적과 싸울 수 있는 작전과 전술이 산출 될 수가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아주 정확히 북한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결국 기도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필자가 한국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문제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특히 나라의 상부구조 안에서 권력을 부여받아 일하는 사람이나 북한을 연구한다고 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교회와 군인들을 비롯한 모두가 북한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심하다는 감정마저 느꼈다. 필자가 평양에 있을 때 김일성이 죽었다. 그때 남과 북의 정세는 지극히 긴장모드로 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임무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세를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의 방송에서 대북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나와서 김일성이 죽었으니 이제 3년이면 북한은 망한다고 인터뷰 하는 것을 보았

다. 필자는 그 순간 ‘아 대한민국은 북한의 모든 것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 3대 세습을 하며 견제한 모습이다.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어느 한 TV에서는 또다시 이제 북한은 3년이면 망한다고 방송을 하는 것을 보았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 했으며 방송을 했는지 지금도 묻고 싶지만, 북한을 모르면서 그렇게 말 할 수 있으며 북한을 모르기에 자기 가치관, 대한민국의 가치관, 그리고 보편적 가치관으로부터 결론을 내리고 나온 말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70여 년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달라진 것은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세대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 동안 고난의 행군도 했고 수백만 명의 인민들이 굶어 죽기도 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들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북한 노동당 규약에서 잘 알 수 있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는 노동당의 당면 목적과 최종목적이 당의 강령으로 규약화 되어 있다. 당면 목적으로서 “공화국 북반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 되었던 것을 이번 8차 당 대회에서 “강력한 무장력으로 조국을 통일한다” 라고 말을 바꿨을 뿐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 통일 강령은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새해 벽두부터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는 야망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은 다 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 해외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각도에서 북한의 행보에 대하여 견해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한 것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논평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필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을 모르고 논평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자가 이해하는 북한 수뇌부의 생각을 써내려가 보고자 한다.

북한의 의도는 우선 아직 완성되지 못한 각종 미사일들을 완전무결하게 완성하고자 하는 임상 시험에 불과한 군사적 행동으로 보인다. 필자는 북한의 핵 무장과 대량살육무기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북한은 무엇인가 계획을 하면 대외적으로는 그 무기가 완성되어 무장화 하였다고 떠들어 대는 전술이 있다. 물론 전술적 미사일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최고 사령부 작전도 안에는 상설적으로 배치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800여기의 미사일이 있다. 그러나 지금 쏘아대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기타 잠수함 미사일 같은 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임상과정에서 마구 쏘아대는 것이다. 또한 그와 함께 미국과 대한민국에게, 특히 미국이 제제를 풀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초강수 협박 차원에서 쏘아대는 정치적 목적도 있다. 필자는 아직도 북한은 핵무장화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확신하는 이들 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완성되었든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던 간에 이 모든 대량살육 무기들은 언제든 쏘기 위해서 장비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협하기 위한 위장용만은 아니다. 그들이 쏜다면 누구를 향해 쏘겠는가? 사실은 미국도 아니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 북한군 해당부분 장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핵을 빨리 완성해 가지고 그 핵으로 우리는 조국통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 와서 더 강화되었을 것이다.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을 대상으로 도발할 카드가 있다면 각종 핵시험 밖에는 더 없을 것이다. 물론 더 발전되고 상대측이 요격할 수 없는 미사일 완성을 위해 올해 초에 마구 쏘아 던 미사일들을 더 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북한의 이와 같은 만행은 유엔에서도 제제하기가 힘들어졌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편을 들어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북한 노동당은 정권을 잡은 70여 년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이 바로 적화 통일 야망이다.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 북한을 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세계의 전문가들 그리고 정보기관들은 잘 모르고 있을까? 그것은 첫째로 자존심이 강한 전문가들 즉 인텔리들의 속성이다. 그들은 자기가 고집하는 것은 끝까지 고집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인텔리 혁명화를 했고 혁명화를 했음으로 하여 노동당에서 “아” 하면 인텔리들도 “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다. 필자가 본 한 북한 문제 전문가라

고 하는 사람은 북한 노동당에서 선군정치를 한다고 하니 ‘아 군대가 당 위에 있구나’ 라고 잘못 판단하고 노동당도 군대의 지시를 받는다고 고집하였다. 그 전문가의 강의를 들은 어느 한 교회는 그러면 이제 일 년이면 북한은 알도리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 본당 예배당에 시계를 걸어 놓고 일 년 내내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나의 가치관,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치관으로 북한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판이다.

북한을 바로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부 탈북자들의 거짓말 때문이다. 탈북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알지 못하는 북한의 여러 영역을 남한에 와서는 모두 잘 아는 것으로 둔갑하는 현상이 많다. 셋째로 정치가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관점에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 이념에 맞게 북한을 꾸미기 때문이다. 최근 종전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렇지만 종전 선언이 합의되면 영원히 이 땅위에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도래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사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을 엄격히 쌍방 간에 잘 준수하기만 해도 이 땅 위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그 어떤 협정이 문제가 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종전을 합의를 해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두 말 할 것 없이 전쟁을 일으킬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배제하고 북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외에 있는 어떤 분은 북한은 내재적 접근 방법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2)

-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

●
꿈을 꾸는 자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창 12:2)”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신실하게 알려주곤 하셨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꿈을 통해 크고 작은 일들을 대비하도록 하셨다.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던 일들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연결이 되었던 사건도 있었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되었고 또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중국에서 처음 머물렀던 이모 댁에서 쫓기듯 떠나기 전부터 기도 가운데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었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 떠나야 하겠다는 결정을 미루고 또 미루었다. 훗날 이 시점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마치 가야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을 도전하셨던

그 주님의 도전이 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는 이모 댁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 곳은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함께 조선족과 한족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다. 매일 같이 말씀을 읽으시고, 찬송가 1장부터 끝 장까지를 반주기도 없이 찬양하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몰입하기 시작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곳에서의 짧은 1년이라는 시간동안 주님과 나의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처음 목사님 댁에 도착했을 때 내 마음은 온통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친척이라는 사람이 다른 가족과 다름이 있었다고 골탕 좀 먹어봐라 라는 심보로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 나를 데리고 있었던 이모는 벌금을 낼 것이고 사촌 형님은 그 꼴을 보며 고소해 하면 그만이겠지만, 나는 친척의 신고로

으로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필자도 그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본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나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한을 바로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한들 무슨 응답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러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북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미 오랜 기간 북한을 상대해 보았지만 그 결과는 정치가들이 떠들어 대는 평화타령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생산되는 경제교류나 여러 가지 협정들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필자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올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이번 선출되는 대통령은 이제는 평양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평양에 찾아 가는 것이 정례화 되는 듯하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현상을 가지고 남조선 당국자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인민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그들이 올라가 발표한 각종 선언들이 실제적으로 무슨 유익을 주었는가? 이제는 이런 쇼를 그만하고 총대위에 평화가 있다고 하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같은 논리로 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북한 문제는 정치로도 안되고, 경제로도 안되며, 그렇다고 전쟁과 같은 극단적 방법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간의 실천을 통해 마음에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 이외에

세상에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서 필자는 “북한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리고 북한은 절대로 무너진다” 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를 무장시킨 하나님의 영으로 북한을 잡고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대위임령으로 우리들에게 하달하신 것이다. 북한 복음화는 무엇보다 힘이 든다. 그러나 해야 한다. 사도 바울처럼 “내 민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하고 기도하며 달려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지금도 탈북 기독교 군인회 회장으로 서, 하나님의 특공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역에서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2년 5월, 중국 선양 일본총영사관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는 탈북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닥뜨렸던 것이다. 얼마나 악한 감정에 시달렸는지 도망쳐 오는 길에 손발에 동상을 입은 줄도 몰랐다.

그간의 자초지종과 함께 “꼭 돌아가서 불을 지를 것입니다.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서 사람을 사서 불을 지르고야 말 겁니다.”라는 분노 섞인 말을 뱉는 나에게 목사님께서서는 가만히 들으시다가 성경 인물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구하기 위해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목사님은 “내가 북한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며, 나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위로는 되었지만 여전히 그 친척들을 용서하고 싶지는 않았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보호 아래 감사하게도 일년을 보내었지만 도망친 그 곳에서도 탈북자로서의 신변의 위협은 여전했다. 내가 살던 동네는 주로 한족들이 살던 곳이라 그나마 단

속이 없었지만 건너편 조선족 마을은 무섭게 단속을 했다. 밤마다 개들이 짖는 날이면 영락없이 북한 사람들이 잡혀갔다. 심지어는 잡아가기 전에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이고 돈까지 건어간 후에 뒤통수를 치고 쳐들어와 북한 여자들을 잡아갔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낼 곳을 찾기 위해 목사님,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 거처를 옮겼다. 한국 사람들도 많고 조선족 교회도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 집을 하나를 알선해 주셔서 지참고를 개조한 방 같은 곳을 구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기도 하는 열악한 곳이었지만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교회를 통해 일자리도 구해서 작은 규모의 회사 숙소를 청소해주고 요리해주는 일을 할 수 있었고, 비교적 안정을 찾은 나는 그 곳에서 4년 정도를 머물게 되었다. 예전에 이모가 만들어 준 신분증을 항상 들고 다녔기 때문에 시장에 가는 등 간단하게 외출할 때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중국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영락없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사람들에게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한 조선족이라고 둘러댔는데, 그 때마다 마음 한 켠이 시렸다. 북한 양계장에서 청년 열성자로 추천을 받아 대학교까지 나온 것이 이곳에서는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참 억울하고 속상했다. 손짓, 발짓 다 써가며 의사소통을 해보다가 후에는 사전을 찾아가며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적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처를 얻고 안정을 찾았지만, 그곳에서도

왠지 모르게 다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이 곳은 내가 임시로 머무는 곳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이런 마음이 들자 나는 다음 행보를 결정하기 위해 금식기도를 결심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는데 감시기운이 올라왔다. 그런데 약을 타서 열심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되어도 병이 낫지를 않는 것이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국사람이라고 속이고 병원에 갔는데 검진 결과는 결핵이었다. 나는 당시 결핵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죽이실 거면 차라리 북한에서 죽이시지, 쫓겨 다니고 아프고 실컷 고생시킨 후에 결국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참으로 한탄스러웠다. 치료비도 충분치 않아 최소한의 약만 먹으면서 버티고 버텼다. ‘몸이 성치 않으니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되었다. 딱히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성경책을 펴보기 시작한 것이 내 인생의 또다른 전환점이 되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습관이 되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다. 찬양을 부르다가 심심해지면 노트를 펴서 성경을 손으로 써보기도 했다. 창세기부터 성경 필사를 하다보니 창세기 족보를 다 외우게 되었다. 불쑥 마음 속에 원망과 서러운 마음이 들 때면 울며 불며 기도했고, 그러다 지쳐서 자기도 했다.

어느 날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꾸었던 꿈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꿈 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사는

방 문을 벌컥 열더니 정체 모를 커다란 물건을 놓고 나갔다. 어두운 내 방 안에 그 정체모를 물건으로부터 수백 마리의 새까만 구렁이들이 나와서 온 방 안을 기어 다니기 시작했다. 꿈 속이었지만 너무 끔찍했고, 나는 그 즉시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기도를 했다. 그러자 천장을 뚫고 환하고 강렬한 빛이 쏟아져 내리면서 어두웠던 방 안이 마치 대낮같이 환해졌는데 그 빛에 새까만 구렁이들은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다. 빛에 닿으면 구렁이들은 바사삭 소리가 나면서 타서 없어졌다. 벽과 바닥에 그 구렁이들의 흔적만 남았다. 곧이어 사람들이 들어와서 침대 밑이나 장롱 밑에 도망가 숨은 구렁이들을 모조리 잡아 통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러고는 잠에서 깨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꿈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라는 마음이 들었다.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결핵이라는 질병이 마치 내 방에 풀어놓은 까만 구렁이 같은 것인데, 구렁이들을 태워 죽였던 하늘의 강렬한 빛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인상이 들었다. 어두운 내 방을 비추시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들을 당장에 파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붙들게 되었다. 또한 내 방에 들어와 구렁이들을 결박시켜 주었던 사람들은 나를 돕고자 하는 교회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신비한 꿈을 꾸고 난 후에 실제로 교회 성도들께서 나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주시기 시작했다.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기도와 꿈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



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성도의 교제와 도움의 손길을 통해 삶의 소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병원에 갈 때마다 통역이 필요했는데, 한 집사님께서 자원해 주시는 덕분에 매년 병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렇게 열심히 병원에 다니며 약도 먹고 주사도 맞으며 결핵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나는 ‘한국으로 가야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아브라함처럼 나를 고향과 친척이 있던 땅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곳으로 정착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팔려온 것 같지만 도리어 나를 통해 북한을 회복시키실 주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이곳 중국에서 신변의 위협을 피해 겨우겨우 생존하는 처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나의 욕심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북한에 남겨두고 온 남동생과 여동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들었다. 여동생은 시집을 가면 그만이지만 남동생은 십여 년동안 고생해서 군 복무를 하고 제대했더니 탈북한 누나 때문에 당원도 못 되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 거기에 내가 한국까지 가버리면 남동생은 산골짜기로 추방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 쉽게 한국행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면 나의 가족까지도 책임지신다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나는 두려운 마음, 그리고 여기서 살아도 나쁘지 않다며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을 따라 더 이상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고열로 몸져 누게 되었다. 결핵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여 간이 나빠진 것

이었다. 약을 줄여보았더니 그 다음날로 기침이 심해져 각혈 직전까지 이르렀다. 약을 더 먹으면 간에 문제가 생기고, 약을 덜 먹으면 결핵이 심해지는, 결핵과 간염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하다 보니 먼저는 북한에 두고 온 여동생과 남동생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 이왕 탈북을 했으면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나중에라도 동생들에게 뭔가 해명할 것이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 또한 기도하던 중에 내가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필사하고 연구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 앞으로는 본격적인 공부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의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다. 물론 몸의 치료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한국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하고 나서 병원에 갈 때마다 통역을 도와주시던 집사님을 찾아가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나에게 한국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항상 제안을 하셨었다. 마음의 결심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자 내심 좋아하시면서 알아보시더니 일단은 팀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하셨다. 그렇게 몇 개월을 기다리니 10명 정도 팀원이 모였다. 보통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을 통한 한국행 루트가 일반적이지만 나는 중국 대도시에 위치한 해외 기관들을 통한 탈출이라는 특이한 루트로 들어가게 되었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

각되는 어떤 장소로 이동하였다. 울타리가 쳐있고 철조망도 높게 쳐져 있었지만 비가 와서 그런지 순찰대원들이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의기 투합하여 철조망을 자르고 드럼통을 뛰어올라 간신히 모두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자칫 잘못하면 단속반의 눈에 뵈 수 있었기에 어떻게든지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너무나 할 것 없이 건물에 달라붙어 모든 문과 창문을 밀고 당겨보았지만 모두 잠겨져 있었고, 우리는 깊어가는 밤과 조여오는 감시 속에 갈수록 마음이 낙담되고 절망되었다.

그 때 기적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작은 창문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그 창문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가 나름대로 잠을 청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애초에 그 창문은 열려 있을 수가 없다며 관계자 분들이 모두 놀라워했다. 어찌되었든 그 기관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 영사관에 무사히 넘겨졌고, 약 일 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 곳에 머물게 되었다.

영사관에서 나는 결핵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독방을 쓰게 되었다. 딱히 할 일이 없어 그곳에서도 성경 필사를 계속하고,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하여서 40분씩 기도하기 시작했다. 심심함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하게 된 주님과의 동행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나는 너무나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아주 우연한 기회로 영사

북, 김정은 불참속 최고인민회의 개최



〈2월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14기 6차)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불참 속에 이번 회의를 주재한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의원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를 맡았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고정범 재정상이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1%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까지는 경제건설 부문 예산을 매년 4.9~6.2%씩 늘려왔지만, 지난해에는 0.6%로 소폭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상대적으로 작은 인상률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은 항목을 신설하고 지난해보다 33.3% 늘렸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

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이한 점으로는 “무역”에 대한 언급이다. 그간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로 인해 대부분의 무역이 중단된 상태이다. 김덕훈 내각총리는 회의에서 대외경제 부문과 관련 “국가의 유일무역 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월 16일부터 중국과 화물열차 운송을 재개한 데 이어 러시아와도 국경 개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33% 증액한 것은 이들 국가들과 수·출입 화물의 방역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설비를 갖추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가 유일 무역 제도”의 언급에서 미루어 볼 때 무역이 재개되더라도 김김정은표 '시장경제 조치'인 기업관리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던 무역 자율화는 폐기되고 과거와 같이 국가 주도의 중앙통제 무역으로 유턴할 것이라 전망된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관 직원으로부터 성경책을 받았는데 성경책 표지 윗부분에 ‘평양대부흥 100주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던 나는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어떤 꿈을 꾸었는데, 깊은 산 속 한 쪽은 꽃밭이 흐드러져 있고, 다른 한쪽은 황량한 벌판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날 선물로 받은 책의 표지가 바로 그 꿈의 장면과 일치했다. 깜짝 놀라 단숨에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평양대부흥에 관련한 다큐멘터리였다.

성경 속 인물 중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 않고 ‘요셉’을 선택한다. 요셉은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나도 그럴 때가 많았다. 몸이 아플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진로에 대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나는 방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그 때마다 나는 성경책을 펴서 주님 앞에 머물렀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무르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꿈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다.

중국에서 우연한 계기로 처음 만났던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분을 나타내셨다. 탈북 과정에서 어머니를 잃고 이모 댁에 있을 때에도, 체포의 위협에서 도망쳐 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 댁에 머물 때에도, 단칸 방에서 병마로 신음할 때에도, 영사관에서 격리된 채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도 그분은 나

의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 꿈을 통해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을 통해 나는 꿈을 되찾았다. 단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닌, 이사야서 52장에서처럼 북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임하시는 그 원대한 주님의 비전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된 것이다. (계속)

북, 삼지연서 ‘김정일 80주년 생일’ 중앙보고대회…김정은·김여정 참석



〈지난 12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80주년 생일을 맞아 백두산 인근 삼지연에서 중앙보고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용

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가 참석했다. 특히 김여정 당 부부장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백두산 인근에 있는 삼지연을 혁명의 성지로 우상화한 장소다. 백두혈통의 뿌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북한은 김정일이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태생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날 중앙보고대회와 함께 야간 불꽃놀이 행사를 성대하게 진행했다. 삼지연시문화회관에서는 216사단기동예술선동대 합동공연도 열렸다. 예상되었던 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북한군, 6·25 퇴각 때 기독교인 1145명 학살”… 진실화해위 첫 확인

6·25 당시 남하한 북한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개신교·천주교인 1000명 이상을 집단 학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최근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팀에 의뢰해 진행한 ‘6·25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를 통해서다. 당시 광범위한 학살은

‘종교 말살’ 정책을 펴온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지시로 이뤄졌다. 충남·전북·전남 지역 피해가 특히 컸다. 희생된 종교인은 기독교인 1026명, 천주교인 119명 등 총 1145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9월 26일 북한 당국은 “반동 세력 제거 후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한 달여간 전국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충남 논산 병촌교회에선 9월 27~28일 신자 16명과 가족 등 총 66명이 북한군과 공산당원들에게 살해됐다.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공산당원들이 삽·몽둥이·죽창 등으로 구타하고 구덩이에 파묻었다. 젖먹이를 가슴에 안고 죽은 엄마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15명의 신도가 학살당한 전북 김제 만경교회에선 10월 1일 공산군 퇴각 후 우물에서 남녀 교인들의 시신들이 발견됐다. 쇠망치로 뒷머리를 맞거나 죽창에 찔린 상태였다. 전북 정읍 두암교회에선 북한군이 10월 26일 교인들을 칼로 베거나 총살한 후 교회를 불태웠다. 우물에서는 말뚝이 박힌 시신도 발견됐다고 한다. 이렇게 22명이 살해당했다.

북한군은 9월 27일 전북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 정읍교회 장로와 우익 인사들 167명을 불태워 죽였다. 150명은 고부 입석리 두승산 폐광에서 집단 학살 후 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영광 염산교회에선 10월 26일 ~ 12월 4일 77명이 학살됐다. 부모들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는 북한군의 협박에 모른다고 한 11세 어린이가 참혹하게 살해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전남 영광 야월교회·법성교회, 전남 영암 구림교회·매월교회 등에서 끔찍한 학살이 자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몸에 돌을 달아 바다에 빠뜨리고, 공동묘지에 생매장하고, 산 채로 불을 지르는 등 온

갖 잔인한 수법이 동원됐다.

연구팀은 북한군과 공산당원의 기독교인 집단 학살은 퇴각 과정에서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숙청이었다고 분석했다. “기독교를 불순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려는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독교인의 숙청은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지시 사항에 따른 것”이며 “이런 학살은 대부분 제대로 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지만 보복보다는 용서를 택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놔다. 66명

이 희생된 병촌교회의 경우 집단 학살에 동조한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북 정읍 두암교회 경우도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들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 같이 신앙 생활을 했다. 전남 임자면 진리교회에서 적대 세력에 피살당한 교인의 아들이 군인이 되어 보복할 기회를 얻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동네 이장

이 돼 분열된 마을을 하나로 회복하는 데 노력한 경우도 있었다.

연구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과거 문헌 자료와 관련자 증언을 수집하고,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연구를 진행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적대 세력의 기독교인에 대한 집단 학살과 종교 말살 정책을 국가기관이 공식 확인한 것이 이번 조사의 의미”라며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참고: 조선일보, 2월 22일〉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남북통합목회의 물결
저자: 정종기 외
출판사: 선한청지기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가격: 15,000원

탈북민의 국내입국이 시작된 이래로 한국교회는 이들을 섬기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1980-90년대 이들이 귀순자로 불리던 시기에 기독교인들의 개별적 접촉과 전도가 있었고, 조사기관인 대성공사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이들의 정착을 도왔다. 1990년대 후반 탈북민의 대규모 국내 유입이 시작되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탈북민 관련 부서를 설립하여 탈북민을 전도하고 양육하며 남한정착을 돕기 시작했다. 이후로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들이 배출되며 탈북민들에 의한 교회개척과 탈북민사역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일부 교회들은 남한출신의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 등이 협력하여 남북이 하나되는 목회 사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책의 네 명의 저자는 모두 탈북민 사역과 남북이 하나되는 사역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목회자들이다. 이들은 “남북통합목회”라는 개념을 통하여 탈북민사역과 남북이 하나되는 목회사역을 정리하고 설명한다.

이 책에 따르면 남북통합목회 개념은 한국교회를 넘어 북한교회와 디아스포라교회의 인정과 협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전까지의 통일목회 담론에서 한국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강했다면, 통합목회는 한국교회가 탈북민교회를 인정하고 파트너로 삼

아 함께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통합목회는 서로 다른 존재인 남한사람과 남한교회, 탈북민과 탈북민교회, 북한사람과 북한교회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역사 안에서 하나되는 것을 지향한다. 이 책의 1부 “남북통합목회의 이론적 배경”은 통일과 통합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한다. 저자들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통일’과 ‘통합’의 개념적 차이를 분명히 한다. 저자들에 의하면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부정할 수 없는 중요 목표이지만 실상은 서로 통일을 말할수록 오히려 통일이 멀어지게 된다. 그 이유는 남한이 말하는 통일과 북한이 말하는 통일 모두 표면적으로는 양국의 수평적 관계를 내세우지만 내심으로는 각자의 체제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흡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결국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이 서로에게 위협이 된다는 점이 현재의 통일 담론이 가진 가장 큰 역설이자 약점이라는 저자의 지적은 통일선교계에 종사하는 사역자 모두가 이해하고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반면에 통합문제는 통일에 비해 고려해야 할 상황도 적고 큰 모순도 없는 문제이다. 이런 면에서 ‘통일’보다 ‘통합’에 초점을 맞추는 저자들의 접근방식은 현재 한국사회와 목회현장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과거 국내에서 이루어진 탈북민 관련 목회를 남북통합목회의 관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결로 구분하고 2, 3, 4부를 통해 각각의 물결에 대해 설명한다. 2부의 제목은 “남북통합목회의 첫 번째 물결”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물결이 해방 후 시작된 월남민

목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탈북민이 대규모로 발생하던 시점의 과도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대신 저자는 이 부분에서 90년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과 이들에 대한 목회를 과거 실향민 목회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강조하며 동시에 탈북민이라고 규정되는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사회 내 탈북민의 위치와 관련하여 저자는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북민을 다문화로 보아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다. 한국정부는 탈북민을 다문화가족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탈북민을 남북한 통합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탈북민이 가진 다중적 성격을 감안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다문화 이주민 정책의 관점에서 연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같은 민족에게 무슨 다문화의 잣대를 들이대냐!”라는 우리 사회의 정서적 반감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한국의 여러 학계에서 이주민의 관점에서 탈북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각적 분석과 이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탈북자 관련 풍부한 담론들은 탈북민의 국내정착을 위한 풍성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아 저자의 지적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3부 ‘남북통합목회의 두 번째 물결: 한국교회 내 탈북민 부서’에서 저자는 한국교회 내 탈북민 사역의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탈북민에 대한 호칭문제, 탈북민의 정체성 문제, 탈북민과 함께하는 예배에 관련된 전반적 문제들,

탈북민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들 그리고 탈북민 부서의 방향성문제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지난 20년간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진 탈북민 사역의 여러 성과와 시행착오를 종합하여 각 사안의 핵심문제를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3부의 3장 ‘탈북민 사역을 위한 이론적 지침과 적용’에서는 탈북민 부서사역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한다. 첫째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이는 교회는 단순히 이전처럼 끌어들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접촉이론(contact theory)”은 한 집단에 속한 사람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접촉만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한 편견의 감소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 4부에서는 남북통합목회의 세 번째 물결인 탈북민교회를 다룬다. 탈북민교회는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통합되는 데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는 ‘오아시스의 역할’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약자인 탈북민들이 탈북민 목회자들의 포용과 보살핌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을 통하여 동병상련의 감정과 안정감을 느끼며 이것이 삶에 긍정적 에너지가 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징검다리의 역할’인데 이는 탈북민교회가 탈북민에게 신병대기소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단순한 탈북민교회를 넘어 북한출신 목회자와 남한출신 목회자가 주도하는 남북통합목회의 현황과 장단점, 목회철학, 재정문제 등을 다각도로 살펴본 후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로 새희망나루교회의 마요한목사와 생명나래교회의

하광민목사의 수기를 제공한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5부 ‘남북통합목회의 새로운 물결’에서는 남북통합목회를 하는 공동체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내적과제와 외적과제를 정리한다. 내적과제의 핵심은 ‘그 공동체의 문화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이다. 남북통합목회는 남한문화나 북한문화 중 하나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임상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저자는 그 새로운 문화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두 가지의 목표를 제안한다. 외적과제로는 한국교회와 각 교단이 하여야 할 준비를 다룬다. 저자들은 교단별로 실질적 기구가 세워지고 교단간의 협력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책의 추천사에 나오는 유관지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이 책은 한국교회 탈북민 사역 20년의 응집본이다. 지난 20년간 한국교회에 있었던 탈북민 사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념의 양극화 시대에 가장 민감한 문제인 통일-북한관련 이슈를 다루며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도 읽을 수 있다. 이 책의 주목할 점은 첫째로, 통일과 통합의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통합에 대해 다룬다는 점이다. 성도들 간의 통합과 목회자의 목회는 교회의 보편적 가치이다. 반면 “남북통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두 집단이 같은 단어를 부르짖으나 속으로는 완전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매우 복잡한 가치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덮어두고 이루어지는 통일에 대한 논의는

사상누각,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깊이 있는 통찰 없이 통일문제를 다루어왔다. 이 책은 이러한 보여주기와 사상누각에 동참하기를 과감히 포기하고 ‘통합’의 가치에서 출발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이는 지난달 서평을 통해 다룬 『한반도 평화학』의 첫 논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상호전환’이 통일이 아닌 평화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둘째, 이 책은 현재 단계에서 남북통합목회의 두 기둥을 이루는 한국교회 내 탈북민 부서와 탈북민교회에 대해 종합적 분석을 제공한다. 탈북민사역의 현황과 사역의 쟁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론적 지침과 적용을 제공하며 그에 대한 결과와 대안으로 남북통합목회를 제시한다. 셋째, 이 책은 과거 실향민교회의 연장선상에서 남북통합목회의 논의를 시작한다. 우리는 역사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생겨난 수많은 월남자들과 그들이 남한에 정착하며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킨 일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다. 과거 실향민교회들의 모델은 국내입국 탈북민목회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생명나래교회의 사례에서 보듯 목회의 본질 즉 ‘복음과 주님의 공동체’에 집중할 때 탈북민교회의 목회도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나래교회에 앞서 수많은 실향민교회들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었다.

저자는 한국교회에 탈북민의 존재는 축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탈북민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 큰 축복이다. 남북의 분단된 상황과 북한의 비극적 상황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기억할 때 국내입국에 성공한 탈북민은 절망 속에 피어난 희망의 선물로도 볼 수 있다. 탈북민들은 냉전과 분단을 가로질러 한국까지 왔다. 이로써 남북한을 가르고 있는 장벽 사이에 수많은 ‘틈’을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존재 그 자체로서 역동성과 가능성을 지닌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탈북민과 함께 ‘어떻게 동역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가?’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수많은 사례들과 선교적, 사회학적 분석을 통한 통찰은 남북통합목회를 꿈꾸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험 이 통일을 앞당기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통일을 온전하게 하는 데에는 분명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

1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를 위시한 동아시아의 정세가 변곡점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여전한 상황인 가운데 미국은 올해 말 중간선거를, 중국은 3월 양회와 올해 말 시진핑의 3연임을 결정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를 틈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기 개발과 시험이 이어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년초부터 다양한 국제적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면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선을 맞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군비증강의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연초에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 발사 등에 대해 "위대한 담력과 배짱이 불러온 승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또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인민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에게 용서나 자비가 없을 것이라는 김정은 동지의 의지를 과시한 쾌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하여 미국과 한국을 자극하며 주민들에게 정권의 능력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북한의 군비 증강과 각종 무기 시험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멈추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 성도들의 인권과 지하교인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조들의 신앙을 이유로 산간 오지로 추방되어 생활하는 기독교인의 후손들이나 반동사상문화법 등에 따른 강력한 사회 통제와 감시 속에 발각되어 형벌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를 비롯한 탈북자 출신 한국인, 그리고 조선족 출신 선교 사역자들이 여전히 억류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갇힌 이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감옥에 갇힌 북한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

겨내도록,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4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년간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경제난은 부자나 고위 간부들이 아닌 일반 서민들과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NGO가 북한을 위한 식량과 물품지원을 시도하고 있으며 유엔도 인도적 차원에서 제재 면제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제재 면제 기간이 속속 만료되고, 지원 단체들은 북한의 수용만 기대하며 같은 물품에 대해 거듭 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유엔이 동참하듯, 북한 정권도 동참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비공식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기관들이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서민들을 돕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픈도어선교회는 취약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본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선교 기관들의 노력이 귀한 열매를 맺어 북한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코로나19 엔데믹을 준비하는 북한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현장에는 과거에 비해 탈북자들이 많이 줄었고 선교현장 당국의 통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수년째 수많은 선교사들의 비자발적 철수가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사태까지 덮치면서 선교 사역 전반이 위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도 조금씩 국경을 열고 무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북한으로부터의 인적 교류 증가는 선교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 잘 대응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간 현장을 지킨 일꾼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선교에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픈도어선교회는 계속해서 현장의 일꾼을 세우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선교 현장에 준비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6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중 일감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는 2019년 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으나 수천 명에서 1만 명 이상의 북한 사람들이 유학 및 관광비자 등 편법을 동원해 러시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 이후로 북한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로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북한이지만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은 비교적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예비된 영혼들입니다. 제 3국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 현장으로부터 라디오 선교 방송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격려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감사의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더 좋은 방송을 개발하고 송출해서 북녘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좋은 방송 프로그램이 계속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며 협력하는 관련 기관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주시도록, 그리고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2년 2월 28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 **모집인원**
해외 파송 선교사 (여성 사역 부분: ○명 / 일반 사역부분: ○명)
-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현장사역 참여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 구제·구호 사역 등)
 - 여성 사역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사역 참여
- > **지원자격**
 - 교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정통 교단 소속 교육부 인가 신학교 졸업 예정이거나 목회학 석사학위 (M.div)를 받은 분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분
 - 여성사역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 (독신자 우대)
 - 연령제한은 45세이나 예외 가능, 중국어 가능자 우대
-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담당 교역자 1부, 담당 교수 또는 소속 단체장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일반 건강검진 결과 (최근 2년, 면접 이후 제출)
- > **기관 소개:**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 **사역 조건** 선정된 선교사 후보생은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파송선교사 자격이 주어지며, 파송선교사에게는 선교회의 기준에 따라 사역 비용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 **모집 기한** 사역자 모집완료까지
-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 **문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이메일 (info@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들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2022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굳세게 하라는 주님의 소명을 따라 선교하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는 기회가 될 북한선교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사:** 2022년 4월 26일 - 7월 26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총 14강)

■ **장 소:**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강의 참석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강의장소 추후 공지)

■ 강의 내용

Part1: 북한에 대한 이해와 선교적 접근

날짜	주제 (예정)
4/26	북한의 사상에 대한 성경적 접근
5/3	북한의 당과 군, 그리고 통제체제
5/10	북한의 장마당 경제와 사회변화
5/17	북한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
5/2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실태 증언
5/31	국내 탈북민 복음화와 통일선교
6/7	국제협력력을 통한 북한선교
6/14	해외 북한 동포와 선교

Part2: 북한 선교의 현장

날짜	주제 (예정)
6/21	북한 선교 현장 개론
6/28	미디어를 통한 북한 선교
7/5	북한 인권 구호 활동과 선교
7/12	해외 북한 여성 사역
7/19	북한선교 전방 사역
7/26	북한 지하교회와 내지 선교

■ **수강 신청:** 3월 14일-4월 15일까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 **등록비:** 10만원 (목회자, 신학생,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 오픈도어선교회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info@opendoors.or.kr)